

“R” 양과 같은,

바람직한 看護員 像

朴 木 月
〈시 인〉

“바람직한 간호원상”이라는 제목을 대하게 되니까, 문득 R 양이 나의 머리를 스쳐갔다.

R 양이라면, 거의 바람직한 간호원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의”라는 부사가 붙게 되는 것은 그녀가 간호원으로서 부족하기보다는 크리미아의 천사 “나이팅게일” 같은 위대한 간호원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원으로서 상징



적인 존재이며, 그와같은 것을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나이팅게일은 크리미아전쟁을 배경으로 그녀의 위대한 정신이 발휘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시(戰時)가 아니며, 그러므로 지극히 일상적 테두리 안에서 “바람직한 간호원상”을 그려보는 것이 실감적인 것일 수 있다. R 양은 그런 뜻에서는 “거의”라는 부사를 뱉 수도 있을 것이다.

R 양의 간호를 받게 된 것은 그렇저렇 7·8년 전이다. 나는 모 종합병원에 10여일 입원을 하게 되었다. 수술을 받은 것이다. 비록 외과계통의 수술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기는 하였으나, 병자(患者)로서의 심리는 다를 바가 없었다. 울적하고 민감하고 그리고 약간 조급한 것이 병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는 평생에 처음 입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나의 심리적인 변화를 어루만져주고, 달래 준 것이 R 양이었다.

내가 R 양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수술한 다음날이었다. 한 간호원이 꽃다발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미쓰 R. 웬 꽃을 한 아름 안고 왔어?

나보다 앞서 입원해 있는 50대의 대머리 환자가 물었다. 나는 그녀가 R임을 알았다.

—미엄 좀 드셨어요.

그녀는 꽃다발에 대한 설명보다 환자에 더 관심을 보여주었다.

—꽃, 참 아름답죠. 몇 호실의 선생님이 퇴원 선물로 주신거예요.

퇴원하는 환자가 주고
마다 돌아다니며 꽃아주는
도, 그녀가 우작 빈병을
다. 나는 그 마음씨가 기특
나, 그녀의 기특한 마음씨
해졌다.



간 꽃다발을 그녀는 병실
것이였다. 나의 머리맡에
구해다가 꽃을 꽃아주었
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
는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

나와 같은 방에 있는 대
을 절단한 중환자요, 이미

머리환자는 위(胃)의 결반
입원한지 20여일이 넘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원들과는 누구나 얼굴이 익었다. 병실에 들어오는 간호원마다 친밀하게 인사를 나누곤 하였다. 그만큼 입원생활에도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위인(爲人)이 약간 주책이 없는 편이었다. 그는 낮이전 밤중이전 간호원을 부르곤 하였다. 내가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용무로 간호원을 불러 그들에게 시키곤 하였다. 하지만 몇 사람의 간호원이 드나들었지만, R양만이 시종일관 얼굴표정을 달리하는 일이 없었다. 병실문을 열고, 들어오는 등그스름한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溫和)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불편 하세요?

그것이 그녀의 인사였다.

—아나, 이 체온계 좀 봐 줘. 어두워서 볼 수 있어야지.

—아, 그러세요.

체온계를 받아 든 그녀는 그것이 정상적이든 좀 높은 편이든, 한결같이 조용한 미소를 띄우며,

—38도군요. 선생님(의사)께 여쭙 보겠습니다.

혹은,

—열려 마세요. 아주 정상적이네요.

그리고 담노자락을 다투겨려 주고 조용히 물러갔다. 물론 그와같은 다정하고 온화한 표정은 열자리에 있는 그 환자뿐만 아니라, 내게도 보여 주었다. 열자리에 있는 환자에게 용무가 있어, 병실에 들어오면, 의례 내게도 한 두마디 병문안을 하였고, 내게 용무가 있어 병실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열자리 환자를 그냥 지내치는 일이 없었다.

—미쓰 R. 구수한 승녕 한 그릇 구해줄 수 없을까. 승녕이 먹고싶단 말이야.

주책없는 환자가 그녀에게 부탁하였다. 무리한 일이었다. 종합병원 어디서 승녕을 구해온단 말인가. 조금도 표정을 바꾸는 일이 없이

—온갖 것이 드시고 싶으실거예요. 선생님께 여쭙보고; 해롭지 않으시다면 구해 보

했어요.

그녀는 얼마 후 주전자를 들고 들어왔다. 환자에게 반컵쯤 따루어 주고, 내게도 한 컵 주었다.

—박선생님도 집에 가지구 싶으시고, 승녕도 드시고 싶으실거예요.

그녀의 말이었다.

그녀에 대한 자잘구레한 이야기는 끝이 없다. 요는 간호원이라기 보다 그녀는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주었다. 그러나, 친밀하다 하여 그녀가 실없는 소리를 한마디도 입 밖에 내는 일이 없었다. 옆자리의 그 주책없는 매머리가 때로는 엉뚱한 농담을 할 때도 있었다.

—이만한 섹씨감 구하기도 어려울거야. 내가 종매를 해줘야지.

맞대놓고, 이런 소리를 하여도 그녀는 여전히 입가로만 미소를 베풀은 채, 대답없이 듣고만 있었다.

10여일 입원해 있는 동안, 나도 그녀와는 꽤 친밀해졌다. 친밀하기보다 신뢰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무척 고되지?

하루는 내가 물었다. 빙그레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마디 지나가는 소리처럼 하였다.

—환자들도 견디시는데요.

얼핏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그러나 곧 그 말이 환자들도 견디는데 간호원쯤 고되면 얼마나 고되냐. 그런 뜻임을 깨달았다.

(그렇거니……)

나는 두어번 고개를 꺼덕거렸다. 저 자신의 고통을 환자의 고통에 비하는, 그 정신자세가 그녀로 하여금 모든 환자에게 침착하게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환자의 신뢰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정신이나 생활이 따지고 보면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숭고한 애정에서 비롯되게 되는 것이다.

▼ 유 ▲ 미 ▼ 어 ▲	△세계신기록 한 신사가 병이 나서 누워있다. 의사가 와서 체온을 재었는데 눈섭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40도 2분인데...』 신사는 그 말을 듣지 벌떡자리위에 일어나앉아서 회당의 눈을 빛내며 외쳤다. 『선생님, 세계기록은 몇도입니까?』	△Pen Friend 어떤 정신원에서 한 환자가 의석이 앉아서 길고 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때 다른 환자가 지나가다가 발을 걸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나?』 『응, 요새는 아무한테서도 편지가 안와서 난 내게다 편지를 쓰는 거야』 『그때 뭐라고했나?』 『그야 모르지 난 아직 그 편지를 받지 않았거든』
---------------------------------	---	---

